25 선박 건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

성별 남 **나이** 29세 **직종** 선박 건조 및 수리업 **업무관련성** 낮음

1 개 요

근로자 김○○는 2003년 5월 9일 ○○조선(주)에 입사하여 선행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9일 ○○병원에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김○○는 입사 전 2003년 ○○조선교육원 도장부에서 2개월, ○○조선에서 9개월로 총 11개월 동안 주로 블록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한다. ○○조선에서 주된 작업은 페인트 도료 혼합 작업과 블록 내부에 들어가서 붓으로 터치업작업,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, 도장 완료 후 블록 내부 청소, 작업이 끝난 후 시너로 도장기계 내부 세척 작업이었고, 주로 비좁고 제한된 공간인 블록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(작업시간의 50%이상). 개인보호구로는 작업할 때에 피스복은 항상 입었고, 방독마스크는 여름철에는 불편하여 착용안하고 할 때도 많았다고 한다. 근무시간은 8시간에 연장근무 2시간이었고 주말특근도 종종 하였다. 1997년 이전 과거 작업환경 측정자료에서 도장부서에서 평균농도 0.08-1.04 ppm으로 벤젠이 소량 검출된 적이 있으나, 1997년부터는 검출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.

3 의학적 소견

김○○는 약 5년 동안 매일 1/4갑씩 흡연하였으며, 술은 주 1회에 맥주 2병 정도였으며, 과거 다른 병력은 없었다고 한다. 현재 양친 및 다른 가족들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. 도장 작업시 두통, 현기증, 구역, 흉부압박감, 흥분상태, 섬망 등의 증상이 나타나 ○○병원에서 2004년 2월 9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 병으로 진단을 받고 일련의 항암화학요법 및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하였고, 2004년 2월 9일부터 업무 외 상병휴직 중 호전이 없어 2004년 12월 9일부로 당연퇴직한 후, 현재 ○○병원 외래에서 정기적인 경과관찰 중이다.

4 결 론

근로자 김ㅇㅇ는

- ① 1997년 이전 조선업 유기용제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료 및 신너에 벤젠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, 1997년 이후에는 벤젠 함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고 김○○의 근무기간 동안 작업환경 측정상 벤젠이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과,
- ② 김○○의 총 작업일수(11개월 중 10개월)가 혈액암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에 의한 잠복기보다 짧기 때문에,

근로자 김〇〇의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